간호대상자의 문화배경별 임신관리 양상의 비교연구

이정섭, 전정자, 유은광

Ⅰ. 서 언

임신은 단순한 신체생리적 요소만이 아닌 영적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며 개인과가족을 인생의 성숙단계로 혹은 위기단계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이다.

문화란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는 복합된 의미를 갖고 있으나 개인의 생활양식을 지칭하고 학습되고 사회적으로 전승된 행위의 총체[1]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일부의 문화적 배경은 그들의 건강가치(health values), 건강신념(health beliefs), 건강행위(health practice)의 중요한 결정인자[2]이다.

고로 대상자의 간호접근시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고려하지 않고는 적절한 간호제공을 했다고 말할 수 없겠다. 그들의 임신에 대한 신념·가치는 그들의 임신관리를 결정하게 되므로 현 우리 문화권내의 간호대상자들의 임신에 대한 관념 및 임신관리양상을 알아봄은 서구식의 간호접근시에 결여될 수 있는 한국인에 맞는 간호계획및중재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1986년 7월 1일~8월 30일 사이에 서울시, 서울근교,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전라남북도, 제주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훈련된 조사자의 면담 및 설문지 배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결과분석이 곤란한 설문지를 제외한 520명만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삼았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로 내용은 일반적 사항 10문항, 임신관리에 도움이 되는 임신시 금해야 할 음식·행동·마음가짐, 섭취해야 할 음식, 취해야할 행동 및 이유를 묻는 주관식 5문항, 출산시 도움이 되는 음식 및 이유, 행동을 묻는 주관식 1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AS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백분율과 χ^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표 1과 같이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현거주지역, 자녀수, 종교, 학력,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출처 1.2, 태교에 대한 정보입수여부, 임신에 대한 관념, 태교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표 1과 같이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0~39세군이 30.4%로 가장 높고 40~49세가 27.7%, 18~29세가 21.5%순으로 높게 나타나 18~49세가 전체의 79.6%를 차지하고, 지역별 분포는 전라남북도 27.1% 경상남북도 20%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자녀수는 2명이 32.1% 4명이 28.9%순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불교 31.5% 기독교 27.6% 무종교 26.5%순으로, 학력은

1) 김영기외(1984), 사회학(서울 : 예풍출판사), 91페이지.
2) Jensen et al. (1981), *Maternity Care* (ST. Louis: Mosby) pp. 86~87.

표 1. 일반적사항의 인수 및 비율 분포

구 분		인수	비율
연 령	18-29 세	112	21.5
	30-39 세	158	30.4
	40-49 세	144	27.7
	50-59 세	65	12.5
	60 이상	41	7.9
	계	520	100.0
거주지역	서울·경기	60	11.6
	인양·수원	30	5.8
	강 원	53	10.2
	충청남북도	53	10.2
	경상남북도·대구	104	20.1
	부 산	42	8.1
	전라남북도	141	27.1
	제 주 도	35	6.8
	계	518	100.0
한 자 녀 수	1명	79	16.0
	2명	159	32.1
	3명	114	23.0
	1명이상	143	28.9
	계	495	100.0
종 교	기 독 교	142	27.6
	가 톨 릭	67	13.0
	불 교	162	31.5
	유 교	7	1.4
	무 종 교	136	26.5
	계	514	100.0
학 력	국 교 졸	88	17.6
	중 졸	00	20.0
	고 졸	215	43.1
	대졸 이상	70	14.0
	무 학	26	5.2
	계	499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출처 1			
	간호원	7	1.4
	의 사	31	6.0
	백과사전·육아전서	119	23.1
	매스컴	55	10.7
	임신·출산에 관한 전문서적	134	26.0
	특별히 얻은것이 없다.	170	32.9
	계	516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 출처 2			
	친정어머니	197	43.4
	시 어 머 니	59	13.0
	친 구	43	9.5
	이웃·친지	155	34.1
	계	454	100.0
태교에 대한 정보입수 여부			
	있다.	421	81.0
	없다.	38	7.3
	잘모르겠다.	61	11.7
	계	520	100.0
임신에 관한 관념			
	신의 선물이다.	134	26.0
	성생활의 자연적 결과이다.	146	28.3
	신이 허락해야 가능하다.	34	6.6
	자연히 생기니까 갖는다.	42	8.1
	부부의 계획에 의해 의도적으로 한다	160	31.0
	계	516	100.0
태교의 효과			
	효과가 있다	239	51.1
	효과가 없다.	10	2.1
	잘 모르겠다.	137	29.3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82	17.5
	계	468	100.0

고·중졸이 63.1%,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출처에서 특별히 얻은 것이 없다 32.9% 임신출산에 관한 전문서적 26.0%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로 친정어머니 43.4%와 이웃·친지 34.1%로 부터 정보를 들은적이 있으며 81.0% 태교의 효과는 51.1%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에 대한 관념은 부부의 계획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능하다 31.0%, 성생활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28.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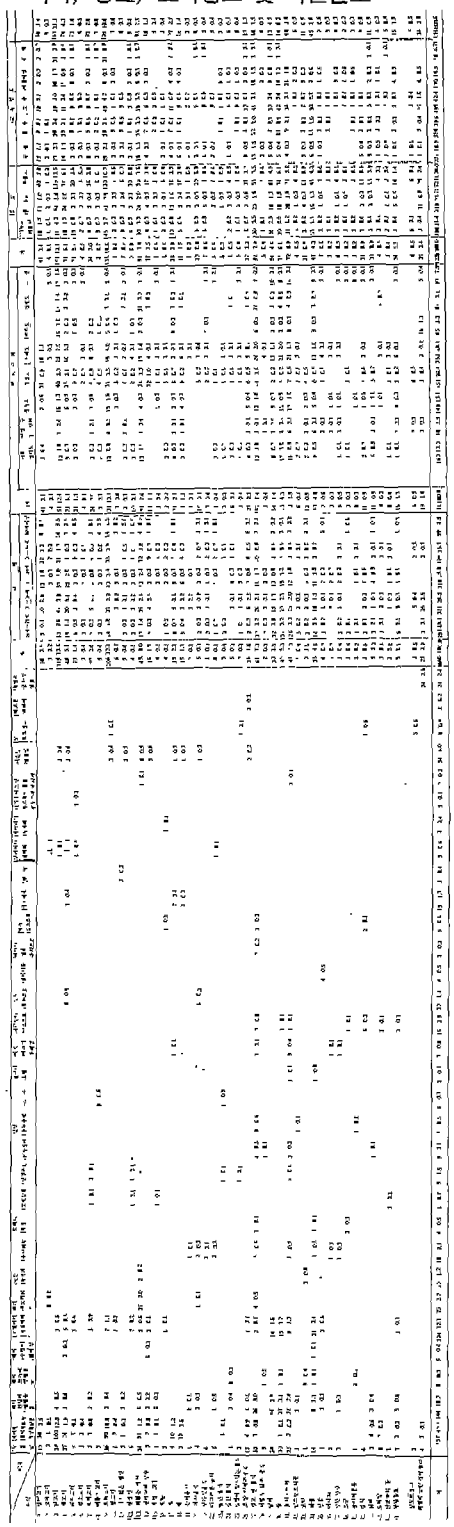
2. 임신중 금해야할 음식

1) 임신중 금해야할 음식 및 이유의 비율분포.

임신중 금해야할 음식을 5가지 나열하게 하고 각 음식에 대한 이유를 달게하여 조사한 결과 총 74가지가 제시되었으나 3인이상 공통된 음식 44가지와 이들 음식을 금하는 이유 29가지가 선정되었고 각 음식에 대한 이유를 달지 않은 음식은 missing처리하여 비율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로 각각의 비율은 520명이 5개씩 대답하기로 되어 있어 응답자 수가 아닌 응답자 수의 5배수 또는 해당하는 사례(case)수에 대한 비율이며 실수는 520명중 표 2와 같이 임신중 금해야 할 음식 44가지중 닭고기 153명(13.8%), 오리고기 126명(12.3%), 뼈없는 생선 93명(8.0%), 맵고 짠 음식 91명(7.1%) 개고기 75명(5.2%), 술 75명(5.2%)순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닭고기 경우 태아가 음식의 모양·형상을 닮음 103명(12.3%), 어른들 말씀이므로 5명(0.4%), 기형아가 생길까봐 5 (0.4%)순으로, 오리고기 경우 태아가 음식의 모양·형상을 닮음 90명(10.1%), 기형아가 생길까봐 9명(1.1%) 순으로 뼈없는 생선 경우 태아가 음식의 모양·형상을 닮을까봐 32명(3.2%), 뼈가 부드러워짐 17명(2.0%), 어른들말씀이므로 8명(0.9%) 순으로, 맵고 짠 음식의 경우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줌 27명(3.14%), 자극적이므로 7명(0.8%) 순으로, 개고기 경우 태아가 음식의 모양·형상을 닮음 16명(1.9%), 신성치 못하므로 8명(0.9%), 물기때문에 7명(0.8%) 순으로, 술인 경우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줌 27명(3.1%), 기형아가 생길까봐 15명(1.7%)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설명되지 않은 음식과 이에 대한 이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임신중 금해야할 음식들의 전반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태아가 음식의 모양·형상을 닮음 357명(41.5%)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줌 144명(16.7%) 기형아가 생길까봐 104명(12.0%)에 몰려있고 이외에 어른들의 말씀이므로 34명(4.0%), 특별히 금한 것이

표 2. 임신중 금하여야 할 음식의 이유, 연령, 거주 지역, 종교, 교육정도 및 비율분포



없다 24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이유별 음식과의 관계를 보면 태아가 음식의 모양과 형상을 닮음에는 닭고기, 오리고기, 상어고기, 뼈없는 생선이, 태아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맵고 짠 음식, 술, 홍차, 커피, 담배가, 기형아가 생길까봐에는 담배, 술, 약물이 분포되어 있다.

2) 임신중 금해야할 음식과 일반적 사항과의 관계

표 2와 같이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현거주지 종교, 교육정도 와의 관계를 보니 연령은 모든 군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각 연령마다 순위가 높은 음식 다섯가지를 골라 비교해보니 50세 이상의 군에서는 태아의 모양·형상을 닮음의 이유로 닭고기, 오리고기, 개고기, 뼈없는 생선, 상어고기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18~29세의 군에서는 태아 건강, 기형아 출생의 이유로 맵고 짠 음식, 술, 홍차, 커피쪽으로, 30~40세군에서는 양쪽으로 골고루 몰리는 경향이 보인다. 현거주지역별 분포는 제주도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회지고기를 금하는 분포가 약간 높고 그 이외에는 각 지역간에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종교별 분포는 종교와 무관하게 동일한 분포를 보이며, 교육정도별 분포도 비슷하나 학력이 무학, 초·중졸군에서 음식의 모양과 형상을 닮음의 이유로 닭·오리고기·뼈없는 생선쪽으로, 대졸이상의 군에서는 태아기형·건강에 영향의 이유로 맵고 짠 음식, 술·커피·홍차쪽으로 분포된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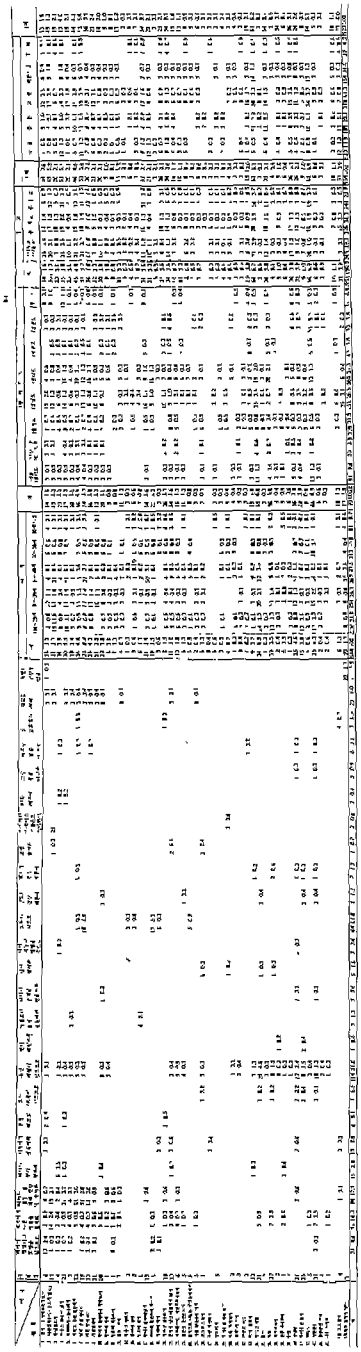
3. 금해야 할 행동

1) 임신중 금해야 할 행동 및 이유의 비율분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해야할 행동 4가지와 각각의 이유를 나열하게 하여 조사하여 보니 총 69가지의 음식이 제시 되었으나 3인이상 공통된 음식으로 45가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이유로 20가지가 제시되었다.

표 3과 같이 임신중 금해야할 행동은 45가지중 심한 운동이 66명(6.1%), 장기간 여행 65명(6.3%), 싸우고 화내기 및 싸우고 화내는 것 보기 55명(5.5%), 남의 물건 탐하기 54명(6.4%), 나쁜 생각 품기 흉보기 및 듣기 50명(5.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심한 운동과 장기간 여행은 유산의 위험 때문에, 싸우고 화내기 그리고 보기는 태아의 행동성격에 영향을 줄까봐서, 남의 물건 탐하기는 도둑이 되므로, 태아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나쁜 생각 품기·흉보기 및 듣기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태아의 행동·성격에 영향을 주므로에 높은 분포를 보이고

표 3. 임신중 금하여야 할 행동의 이유, 연령, 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별 비율분포



있다.

그 이외 설명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이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임신중 금해야 할 행동들의 전반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유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114명(21.6%),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96명(17.7%), 태아가 형상·모양을 닮음으로, 도둑이 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별 금할 행동을 보면 유산위험에 장기간여행, 심한운동, 성생활, 과로, 뛰기 순으로, 태아의 행동·성격에 영향을 줄까봐에는 싸우고 화내기, 싸우고 화내는것 보기, 나쁜 생각 품기·흉보기 및 듣기, 남의 물건 탐하기,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에는 나쁜 생각 품기·흉보기 및 듣기, 과로, 심한 운동 순으로, 도둑이 되므로에는 치마에 물건 싸서 다니기 남의 물건 탐하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 정상보다 늦게 낳을까봐에는 말고삐 넘기가 6명이나 분포되어 있다.

2) 금할 행동과 일반적 사항과의 관계

금할 행동과 연령, 현거주지, 종교, 교육정도별 분포를 보니 연령별 분포는 모든 연령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60세 이상의 군에서는 담이나 울타리 넘기, 문설주 난간·이 음새에 앉기, 상가집 방문하기에 높은 분포를 보이며 18~29세 군에서는 장기간 여행심한 운동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현거주지별분포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경상도에서는 살생이나 살생하는 것 보기, 전라도에서는 거칠고 포악한 행동하기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종교별 분포는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교육정도별 분포는 초·중졸, 무학 군에서 특별히 금한것이 없다에 다른 군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며 무학력군에서는 상가집 방문하기, 장 썩어 먹기, 불난집 보기에, 국졸군은 싸우고 화내기 및 보기, 치마에 물건싸서 다니기, 남의 물건 탐내기, 담이나 울타리 넘기, 문설주 난간 이음새에 앉기, 고졸이상군에서 심한 운동, 장기간 여행의 구체적인 행동 쪽에 높은 분포를 보여 금하는 행동의 양상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4. 임신중 가져야할 마음가짐

1)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이유의 비율분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개씩 나열하게 하여 조사하여 보니 44가지가 제시되었으나 3인이상 공통된 것 34가지와 이유 9가지가 선정되었다. 표 4와 같이 34가지중 착하고 고운 마음 121명(15.0%), 편안하고 평온한 마음 93명(11.5%), 정직하고 곧은 마음 69명(8.6%),

표 4. 임신중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이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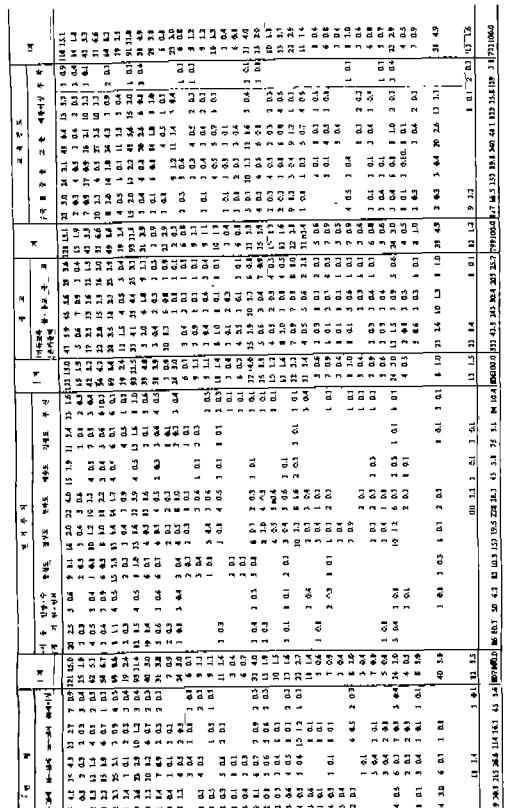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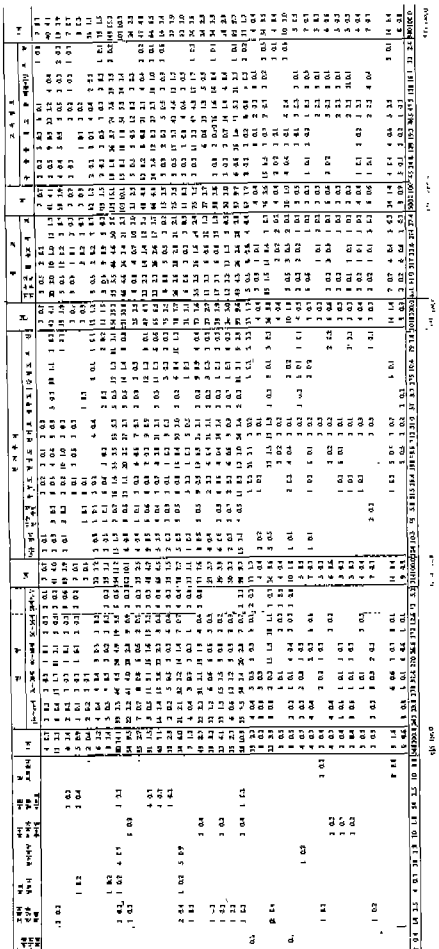


표 5. 임신중 굉장하여야 할 음식의 이유, 연령, 현 거주지, 종교, 교육정도별 비율분포



기쁘고 즐거운 마음 54명(6.7%), 책읽기와 음악듣기, 맑고 건전하고 건강한 마음이 각각 40명(5.0%)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각각에 대한 이유로 모두에서 태아의 마음·성격·정서에 영향을 주므로에 몰려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 이외에 설명되지 않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임신중 가져야할 마음가짐들의 전반적인 이유는 태아의 마음·성격·정서에 영향을 주므로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태교를 위해, 태아의 얼굴이 그대로 닮음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2) 임신중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일반적 사항과의 관계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현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와의 관계를 보니 모두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연령이 30~39세, 교육정도는 고졸이상 군에서 책읽기, 음악듣기가 다른군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5. 임신중 섭취해야할 음식

1) 섭취해야할 음식과 이유의 비율분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보니 40가지가 제시되었으나 3인이상 공통된 음식 34가지와 이유 18가지가 선정되었다.

표 5와 같이 34가지중 과일 154명(11.2%), 육류 102명(10.1%), 우유 98명(9.7%), 야채 78명(7.7%), 멸치 77명(7.6%), 계란 66명(6.5%)순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이유로는 과일에 태아 피부가 고와짐 6.4%, 태아 건강 및 발육에 영향을 줌 3.5%, 모체 영양 보충 1.1% 순으로, 우유에 태아 건강 및 발육에 영향을 줌 3.2%, 태아 피부가 고와짐 2.1%, 모체 영양 보충 1.0% 순으로, 야채는 태아건강 및 발육에 영향 1.6%, 피부가 고와짐, 변비예방에 각각 0.9%, 멸치는 아기 치아, 뼈를 튼튼하게 해주므로 4.2%, 태아건강 및 발육에 영향을 주므로 2.8%, 계란은 순산을 위해 3.0% 태아 건강 및 발육 1.4%, 어른들 말씀이므로 0.7%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설명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이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임신중 권장해야할 음식의 전반적인 이유는 태아 건강 및 발육에 영향을 주므로가 173명(30.6%)으로 가장 높고 모체영양 보충을 위해 66명(11.7%), 순산을 위해 65명(11.5%), 태아피부가 고와짐 64명(11.3%)순으로 나타났다. 권해야할 음식으로 돼지고기는 그 이유로 순산을 위해 2.8%, 산도를 부드럽게 하기위해 0.7%, 모체의 배를 든든하게 하여 힘이 있게 함 0.5% 순으로 나타나 다른 음식과 섭취하는 이유가 다르다.

2) 섭취해야 할 음식과 일반적 사항과의 관계

일반적사항으로 연령, 현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와의 관계를 보니 연령별로 보면 18~49세 군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50~59세 군에서는 다른군에 비해 돼지고기와 보약에, 60세이상의 군에서는 보약,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에 높은 분포를 보였고, 현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별 분포는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교육정도에서 무학과 국졸에서 보약에 다른군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6. 임신중 취해야할 행동

1) 임신중 취해야할 행동과 이유의 비율분포.

같은 방법으로 행동 5가지를 나열하게 하고 조사한 결과 49가지가 제시되었으나 표 6과 같이 3인 이상 공통된 행동 43가지와 이유 14가지를 선정하였다.

43가지 행동중 적당한 일과 운동 290명(27.3%), 조심스런 행동 76명(7.1%), 좋은 음악듣고 그림보기 60명(5.7%), 충분한 수면 57명(5.4%), 책을 가까이하기 49명(4.6%), 무거운것 들지않기 45명(4.2%) 순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고 그 이유로는 적당한 일과 운동에 태아가 너무 크지 않게하여 순산하기위해 93명(17.2%), 태아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45명(8.3%), 모체건강을 위해 33명(6.1%)순으로, 조심스런 행동에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10명(1.9%), 태아 성격과 정서·마음에 영향을 주므로 6명(1.1%)순으로, 좋은 음악듣고 그림보기에 태아 성격과 정서·마음에 영향을 주므로 24명(4.4%), 모체의 정서안정을 위해 6명(1.1%) 순으로, 충분한 수면에 태아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9명(1.7%), 모체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5명(0.9%) 순으로, 책을 가까이 하기에 태아성격과 정서·마음에 영향을 주므로 15명(2.8%), 태교를 위해 4명(0.7%) 순으로, 무거운것 들지 않기에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17명(3.1%), 태아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4명(0.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설명되지 않은 행동들에 관한 이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임신중 취해야 할 행동들의 전반적인 이유는 태아가 너무 크지않아 순산하기 위해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태아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태아 성격과 정서·마음에 영향을 주므로, 모체의 건강을 위해,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임신중 취하여야 할 행동의 이유, 연령, 거주 지역, 종교, 교육정도별 비율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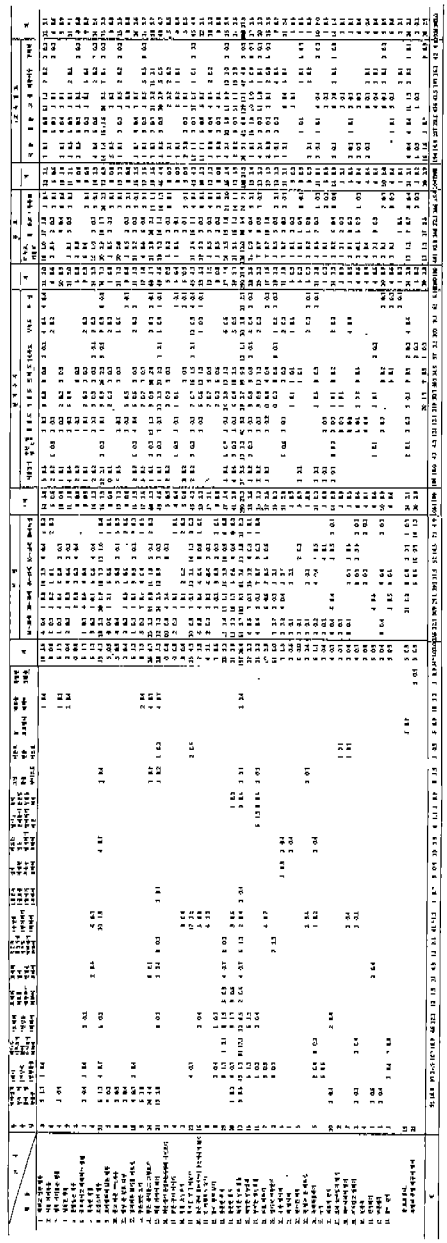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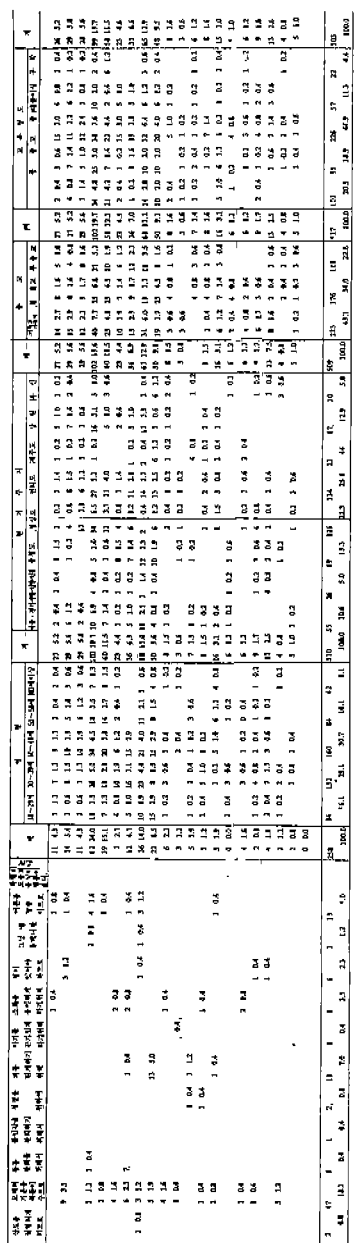


표 7. 출산시 도움이 되는 음식의 이유, 연령, 거주 지역, 종교, 교육정도별 비율분포



2) 임신중 취해야할 행동과 일반적 사항과의 관계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현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별분포를 보니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군에서, 현거주지역별로 보면 경상도에서, 교육정도별로 보면 국졸과 무학군에서 다른군 보다 특별히 취할 행동이 없다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7. 출산시 도움이 되는 음식

1) 출산시 도움이 되는 음식과 이유의 비율분포

4가지 음식을 나열하게 하여 조사하여 보니 29가지 음식이 제시되었으나 3인 이상 공통된 음식으로 20가지 음식과 이유 16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7과 같이 20가지 음식중 계란 103명(19.7%), 돼지고기 68명(13.0%), 날 계란 60명(11.5%), 미역국 50명(9.6%)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각각의 이유를 보면 계란에 순산하므로 33명(12.8%), 아기를 매끄럽게 하므로 18명(7.0%), 어른들 말씀이므로 4명(1.6%)순으로, 돼지고기에 순산하므로 22명(18.5%), 아기를 매끄럽게, 모체의 기운을 돋구기 위해, 어른들 말씀이므로 각각 3명(1.2%)순으로, 날 계란에 순산하므로 29명(11.2%), 아기를 매끄럽게 하므로 4명(1.6%), 산도를 부드럽게 하므로 3명(1.2%)순으로, 미역국에 피를 맑게 하므로 13명(5.0%), 모체 기운을 돋구기 위해 5명(19%), 순산하므로 3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설명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이유가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출산중 도움이 되는 음식들의 전반적인 이유는 순산을 위해 106명(41.1%), 모체 기운을 돋구기 위해 47명(18.2%), 아기를 매끄럽게 하므로 28명(10.9%)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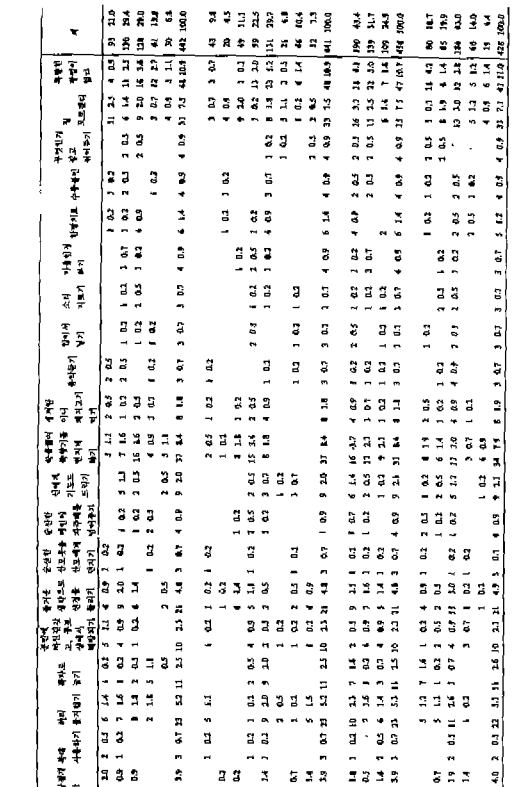
2) 출산시 도움이 되는 음식과 일반적 사항과의 관계

표 7과 같이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와의 관계를 보니 각 사항의 각군 마다 별차이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경상도에서 참기름이 순산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출산시 고통을 줄이며 낳는 방법

출산시 고통을 줄이며 낳는 방법을 2가지 나열하게 하여 조사하여 보니 44가지가 제시되었으나 3인이상 공통된 방법 28가지를 선정하여 표 8과 같이 비율 및 연령, 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별 분포를 보니 평소에 적당한 운동·일하기 52명(11.8%)에 가장 높은 분

표 8. 출산시 고통을 줄이며 낳는 방법의 연령, 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별 비율분포



포를 보이고 특별한 방법이 없다 48명(10.9%), 쑥을 끓여 쑥향기를 번지게 한다 37명(8.4%), 잘 모르겠다 33명(7.5%), 호흡법 이용하기·허리들지 않기에 각각 23명(8.4%), 무통주사 맞기 20명(4.5%), 즐거운 생각을 하여 신경을 다른곳에 돌리기 21명(4.8%)순으로 나타나 임신관리의 다른 분야 보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 잘 모르겠다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연령, 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에 별차이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호흡법이용 이나 제왕절개는 18~29세군에서 또한 전통적인 쑥향기를 번지게 하는 방법은 40세 이상 군들에서 다른 군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며 거주지역별 분포에서 쑥향기 번지게 하기는 다른지역보다 충청·전라·경상도에서 높은 분포를 보인다. 지금까지 임신시 금 할 음식·행동, 권장해야할 음식과 행동 가져야 할 마음가짐, 출산시 도움되는 음식 및 방법을조사해 보니 금할 음식과 행동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서 태교로서 금기했던 음식·행동들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위에 현대문명의 이기속에서 도출되는 오늘날의 정서와 현상속에서 나오는 음식과 행동이 첨가되어 금할 것들로 나와 있고 섭취해야 할 음식과 취해야 할 행동, 가져야 한 마음가짐등은 거의 다 오늘날의 정서와 현상속에서 나오는 음식·행동·마음가짐으로, 대상자들은 임신중에 금해야할 음식·행동은 전래의 전통문화속의 태교[3][4][5]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전통 문화속에는 각 지역 마다 금하는 음식이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으나[6][7] 본 연구에서는 지역마다 특징이나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금해야할 음식의 이유는 전통문화속에서 각 지역마다 같은 음식의 금하는 이유가 약간씩 다른 경우라도 주로 음식의 형상·모양을 닮음으로 해 예나 지금이나 높은 분포를 보이며, 금하는 음식이 주로 단백질 섭취급원이어서 음식이 한정된 범위속에서는 영양공급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겠고 실[8]보고에서도 영양실조 현상이 나타난 예도 있어 산전 간호접근시 대상자의 금하는 음식·행동에 대해 사정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간호접근이 중요하겠다.

9. 일반적 사항과 비 긍정적인 반응과의 관계

음신중 금할 음식·행동, 가져야할 마음가짐, 섭취해야할 음식·행동, 출산시 도움이 되는 음식과 행동의 질문내용에 '잘 모르겠다'와 '특별히 없다'고 응답한 수를 비긍정적인 반응수로 보고 연령, 자녀수, 교육정도, 정보입수 출처 1·2, 정보입수 만족도, 임신에 대한 관념과의 관계를 보니 표 9과 같이 모두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39세군에서는 자녀수 4명이상 군에서, 임신·출산에 대해 특별히 얻은 것이 없고 이웃친지로 부터 정보를 얻는 군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그저그렇다 군에서 태교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는 군에서, 임신에 대한 관념이 신이 허락하고 신의 선물로 보는 군에서 비긍정적인 반응의 비율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약 및 결론

1986년 7월 1일~8월 30일사이에 서울, 경기, 안양수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부산,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및 면담방법을 통하여 임신관리 중 금하여야 할 그리고 취하여야 할 음식, 행동 및 출산시 도움이 되는 음식 및 방법을 알아 보아 우리나라 문화에 알맞는 간호중재 고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AS로 전산처리하였고 percentage, χ^2-test로 분석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출처(1,2)는 특별히 얻은 것이 없다 가 3.9%, 친정어머니가 43.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태교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고(81.0%) 태교의 효과가 있다(51.1%)에, 임신을 부부의 계획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31.0%)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2. 임신 중 금하여야 할 음식은 높은 분포를 보인 닭고기, 오리고기, 뼈없는 생선, 찜고 짠음식, 개고기 술 이외 38가지가 제시되었고, 이 들 금할 음식들의 주된 이유는 26가지 중 음식의 모양·형상을 닮는다,

3)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울서 : 서울대학교 출판부), 108~165페이지.
4) 윤중효(1981), "경남지방의 금기어 연구"(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지금송(1962), "태교와 그의의", 가정교육, 42.
6) (1983), 임신·출산 아기의 첫 365일(서울 : 학원사), 85~101페이지.
7) 김택규(1982), 한국민속 연구논문선(서울 : 일조각), 268~291 페이지.
8) 채영애(1981), 섬마을고동소리(서울 : 수문사).

표 9. 대상자의 임반적 사항별 비공격적인 반응의 비율분포

구 분	빈응수	비율	
연 령	1		
18-29세	21	8.1	
30-39세	110	42.5	x^2=115.4
40-49세	73	28.2	df=4
50-59세	25	9 7	p<0.005
60세이상	30	11.6	
계	259	100.0	
자 녀 수			
1명	41	15.9	
2명	74	28.7	x^2=25.8
3명	35	13.6	df=3
4명이상	108	41.8	p<0.005
계	258	100.0	
교육정도			
국 졸	72	29 0	
중 졸	55	22.2	x^2=153.6
고 졸	80	32.3	df=5
대졸이상	19	7 7	p<0.005
무 학	22	8.9	
계	248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출처 1			
전문인	1	0.4	
백과사전·육아전서	54	20.8	x^2=288.2
매스컴	23	8 9	df=4
임신출산에관한 전문서적	61	23.6	p<0.005
특별히 얻은것이 없다.	120	46.3	
계	259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출처 2	53	25.7	
친정어머니	24	11.9	x^2=133.1
시어머니	8	3.9	df=3
친 구	8	3.9	p<0.005
이웃·친지	121	58.7	
계	206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입수만족도			
만족한다	50	19.3	
그저그렇다	153	59.1	x^2=77.43
부족하다	56	21.6	df=2
계	259	100.0	p<0.005
태교에 대한 정보입수여부			
있다	202	78.0	x^2=235.0
없다	18	6.9	df=2
잘 모르겠다	39	15.1	p<0.005
계	259	100.0	
임신에 대한 관념			
신의 선물이다	136	52.5	
성생활의 자연적 결과이다	43	16.6	x^2=105.1
사연히 생기니까 갖는다	36	13.9	df=3
부부의계획에 의해 맘도석으로 한다.	44	17.0	p<0.005
계	259	100.0	

태아건강에 영향을 준다, 기형아가 생길까봐, 어른들 말씀이므로, 특별히 금한 것이 없다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3. 임신중 금 하여야 할 행동은 높은 분포를 보인 심한 운동, 장기간 여행, 싸우고 화내기 및 싸우고 화내는 것 보기, 남의 물건 탐내기, 나쁜 생각 품기·흉보기 및 듣기 이외 40가지가 제시되었고, 이 들 금할 행동들의 주된 이유는 20가지중 유산의 위험,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태아가 형상·모양을 닮으므로, 도둑이 되므로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4. 임신 중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높은 분포를 보인 착하고 고운 마음, 편안하고 평온한 마음, 정직하고 곧은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책읽기와 음악듣기, 맑고 건전하고 건강한 마음 이외 38가지가 제시되었고 이들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주된 이유는, 10가지 중 태아의 마음·성격·정서에 영향을 주므로 태교를 위하여, 태아의 얼굴이 그대로 닮으므로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5. 임신 중 섭취하여야 할 음식은 높은 분포를 보인 과일, 육류, 우유, 야채, 멸치, 계란 이외 28가지가 제시되었고 권하여야 할 음식의 주된 이유는 18가지 중 태아건강 및 발육에 영향을 주므로, 산모 영양보충, 순산을 위하여 태아피부가 고와짐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6. 임신 중 취하여야 할 행동은 적당한 일과 운동, 조심스런 행동, 좋은 음악듣고 그림보기, 충분한 수면 책을 가까이 하기, 무거운 것 들지 않기 이외에 37가지가 제시되었고, 이들 취하여야 할 행동의 주된 이유는 13가지 중 태아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 순산하기 위하여, 태아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태아의 성격·정서·마음에 영향을 주므로, 모체건강을 위하여, 유산방지를 위하여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보면 임신관리의 내용중 음식과 행동, 마음가짐은 임신관리의 중요 개념 및 핵심인 태아의 모양과 형상, 유산방지, 태아성장발육 및 산모 영양공급, 순산과 모체 및 태아건강, 태아의 마음·성격·정서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로 임신관리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조사된 응어들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순수한 표현이고 음식, 행동, 마음가짐과 그 이유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특히 금할 음식에서와 같이 태아가 모양과 형상을 닮는다는 이유로 금할 때 단백질 급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과 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도움도 안되는 중립적인(neutral) 것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 문화에 현대의 서구식 문화로 인하여 변모된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에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고 사정하여 해로운(harmful) 것은 중립적(neutral)인 또는 이로운(benefit) 면으로, 중립적인 것은 그대로 또는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이로운 것은 더욱 재강화시키므로써 건강한 임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우리문화 속에서 창조되고 전래된 훌륭한 태교개념의 현대적 접근과 이용 및 보급이 간호학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문화재관리국(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편 대구, 형설출판사.
2. 서성우(1986), 태교, 서울, 백양출판사.
3.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 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182페이지.
4. 이원호(1977), 태교, 서울, 박영사.
5. 토마스바니(1983), 태아는 알고 있다. 서울, 샘터
6. 방매륜(1984),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Beverly Horn, (1983), "Cultural Beliefs and Teenage pregnancy", *Nurse Practitioner*, Sep. pp. 35~39.
8. Florian Znaniecki, (1963), *Cultural Sciences*, Ill, Illini Books, pp. 298~329.
9. Jensen et al,(1981), *Maternity Care*, St. Louis, Mosby, pp. 86~101.
10. Marie Scott Brown, (1976), "A cross-cultural Look at pregnancy, labor, and Delivery", *JOGN Nursing*, Sep/Oct., pp. 35~38.
11. Mary dechesnay, (1983), "Cross-cultural Researc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t. Nurs. Rev*, 30, 1, pp. 21~23.
12. Patricia Ann Dempsey, (1983), "The childbearing Haitian Refugee-Cultural Applications to clinical Nursing" *Public Health Reports*, Vol. 98, No. 3, pp. 261~267.
13. Rabbi Isaiah Rackovsky, (1980), "Nurses, Nursing & Culture", *Supervisor Nurse*, July, pp. 20~22. Susan Griffith, (1982), "Childbearing and the concept of culture", *JOGN Nursing*, May/June, pp. 181~184.
15. Susan Kruger, etc., (1983), "Practices of Tradition for pregnancy",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Summer, pp. 135~139.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looks of pregnancy management in Korea.

Joung-Sub Rhee, Jung-Ja Chun, Eun-Kwang Yoo
(Department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oods and Behaviors to eschew or take during pregnancy, and foods and methods can be helped during labor and delivery according to the cultural background for the nursing intervention design befitting our cultur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520 randomly from 10 regions in south Korea.

The data was collected thru questionaire and interview from July 1st to 30th., 1986.

Data analysis included percentage and x^2-test by SA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Foods to eschew during pregnancy came out 44 varieties including a chicken meat, duck meat, invertebrate fishes, hot and salty foods, dog meat, and wine. The main causes to eschew came out 26 varieties including taking after these foods' figure, effects on fetal health, birth of a deformed child.

2. Behaviors to eschew came out 45 varieties including a heavy exercise, long time travel, quarrel, anger, & seeing doing like this, and coveting what belongs to others. The main causes came out 20 varieties including a risk of abortion, bad effects on fetus.

3. State of mind to take came out 44 varieties including a goodness & gentlness, peaceful & tranquil mind, honesty, and pleasant & delightful mind, personality and emotion, and for fetal education.

4. Foods to take in pregnancy came out 34 varieties including fruits, meat, milk, vegetables, and anchovy. The main causes came out 18 varieties including effects on fetal health and development, mother's nutrition supplement, and for easy childbirth.

5. Behavior to take during pregnancy came out 43 varieties including adequate work & exercise, careful action, and listening a good music and seeing a picture. The main causes came out 13 varieties including for easy childbirth, effects on fetal health, and effects on fetus' mind, personality and emotion.

6. Foods to be helped during labor and delivery came out 20 varieties including egg, pork meat, and raw egg. The main causes came out 16 varieties including for easy ch ildbirth, making mother's energy stronger, and getting a baby to be smooth.